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

장 연 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 411명(남자 154명, 여자 257명, 평균연령 22.01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Behavioral Social Avoidance Scale),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회피, 우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 각각의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회피, 우울

[†] 이 논문은 장연수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남운,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심리학과 교수, Tel: 02-2164-4469, E-mail: woonee@hanmail.net

우울증은 개인의 고통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매우 흔한 심리적 문제임과 동시에(권석만, 2000, 2013), 생산성의 저하, 의료비용의 상승, 자살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2021년 경제개발 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거나 우울증을 가진 비율이 36.8%로 조사 대상인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환자 수는 약 93만 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울증 환자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7년 3,038억 원에서 2021년 5,271억 원으로 73.5% 증가했다. 우울증은 원인과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이며,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고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우울증과 그 치료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크게 정서적·인지적·행동적·신체 생리적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울증은 핵심이 되는 슬픈 정서와 함께, 불행감, 공허감, 죄책감, 좌절감, 무가치감, 고독감, 절망감, 허무감 등 고통스럽고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우울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며, 행동적으로는 활력을 잃어 쉽게 지치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체 생리적으로는 식욕과 체중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성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며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권석만, 201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하여 우울의 예측 모형을 구축한 박광희(2008)의 연구에서는 성격적 취약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취약성이 우울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고, 우울의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것에 있어 개인이 가진 성격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격적 취약성은 다양하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내현적 자기애를 다루고자 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곽유미, 2015; 권희영, 홍혜영, 2010; 김경민, 이현정, 2022; 김민서, 이상희, 2019; 김지선, 이소영, 2018; 박선영, 이정윤, 2020;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취약성 중 내현적 자기애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기저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존재할 경우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 중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기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현상적으로는 우울장애 혹은 기타의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호소하는 증상들과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저에 자기애적 성향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우울감에 개입하고자 했을 때 개입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심하게는 상담 관계가 손상되는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임상적 우울증의 증상들, 특히 기분부전을 흔히 보이며, 우울한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McWilliams,

1994/2008).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이들의 거대자기 환상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 대개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거의 동일한 개념인 과민성 자기애 성격의 특성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때때로 다른 성격장애들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혼동될 만큼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진단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회피성 성격장애 같은 다른 성격장애로 잘못 진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홍이화, 2011).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이들이 우울을 호소할 때, 상담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이 기저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 자기애적 특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울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인지행동치료적인 접근을 취하거나, 정신역동적인 상담을 취하더라도 우울성 성격으로 개념화하여 치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적게는 치료 과정의 정체를, 크게는 치료관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전형적인 우울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고 개념화하는 것과 우울 증상의 기저에 자기애적 성격이 있다고 개념화하는 것 사이에는 치료적 개입의 초점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흔한 예로, 정신역동적인 상담을 하는 상담자에게 우울한 유형의 자기애성 성격은 우울성 성격으로 오해받기 쉽다. 우울성 성격으로 개념화할 경우 상담자는 자아를 지지하지 말고 초자아를 공격하라는 자아심리학

자들의 지침을 따르거나, 우울한 정서 경험의 근원을 분노로 해석하고자 할 것이다(McWilliams, 1994/2008). 하지만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이들에게 더욱 주된 정서 경험은 수치심과 공허감이 더욱 중요하며, 초자아를 가정하고 공격하는 시도가 별 도움이 안되거나, 취약한 자기를 더욱 위협하고 수치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인지행동치료적인 측면에서 우울감의 원인을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 및 사고를 찾아내고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이 역시 비슷하게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이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애 성향을 가진 내담자의 자기애적 특권의식을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 치료 관계에서 인식되지 못하는 자존감의 위협을 이끌 수 있다(Dickinson & Pincus, 2003). 자기애 성향을 가진 내담자는 취약한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와의 관계는 늘 위태롭고 깨지기 쉽다. 이들이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유 중 하나는, 수년간 지속된 치료 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하면 갑작스럽게 치료를 그만두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McWilliams, 1994/2008). 우울감의 기저에 자기애 성향이 있는 내담자에게 자기애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할 경우,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치료관계를 잘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통상적으로 우울감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상담 이론의 지침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우울감에 내담자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애적

성격이 파악될 경우 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입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떠한 심리 내적, 행동적 과정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밝혀낼 수 있다면, 상담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떠한 심리 내적·행동적 과정이 존재하는지 밝히고,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내담자의 우울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신분석가들은 외부의 확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성격이 조직된 사람을 자기애적인(narcissistic) 사람이라고 부른다(McWilliams, 1994/2008).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DSM-III(1980)에서는 자기애의 특성을 양가적인 자존감(ambivalent self-esteem)과 병리적인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핵심 특성으로, 과시나 공감 능력의 부족, 특권의식, 착취적인 대인관계, 그리고 비평에 대한 분노 반응과 같은 그 밖의 다른 특성들을 이차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에서 재인용).

하지만 자기애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자기애적 특성이 밖으로 잘 드러나는 자기애 성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자기애로 식별하기 어려운 다른 유형의 자기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수렴되었다. Akhtar와 Thompson(1982)과 Wink(1991)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며 웅대한 자기상이 외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자의 유형을 외현적 자기애로, 실패나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위축된 겉모습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가리는 후자의 유형을 내현적 자기애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 타인의 평가나 실패에 예민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웅대성이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는 자기애의 한 유형이다(Akhtar & Thompson, 1982; Wink, 1991). 이들은 자기고양을 덜 사용하고, 자존감을 조절하기 위해 타인의 피드백에 반드시 의존한다(Cooper, 1998), 이처럼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의 형태가 외현적 자기애와 다르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심성이 많고 공감을 잘하는 듯 보이기에 자기애로 보이지 않는다(권석만, 한수정, 2000; Dickinson & Pincus, 2003).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거대자기 환상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 대개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와 같이, 자기애 성향은 공통적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고 굴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 만큼 ‘잘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무마할 수 없을 때 매우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자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임상적 증상이 바로 우울증이며, 특히 우울증의 경미한 형태인 기분부전장애가 가장 흔하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가 자신을 과장함

으로써 취약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이는 이러한 자기고양을 사용할 수 없어 고통감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이들의 내면에 숨겨져있는 웅대한 자기상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 경험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외현적 자기애처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고양할 수도 없기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는 것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Wink(1991)는 막연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이 내현적 자기애의 중요 특징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으며, Dickinson과 Pincus(2003)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분노와 우울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강석기, 고수현, 2011; 박유미, 2015; 구현경, 김종남, 2014; 김경민, 이현정, 2022; 김민서, 이상희, 2019; 김애경, 하승수, 2020; 김용희, 2020; 김지선, 이소영, 2018; 박선영, 이정윤, 2020; 유현아, 송원영, 2018; 이진숙, 현명호, 2012; 정희선, 이민규, 2022)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의 과대한 자기의 취약성 때문만이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행동적 특성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ickinson과 Pincus의 2003년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웅대성 자기애와 다르게 대인관계에서 고통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냉담한 대인관계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ohut(1977)에 따르면, 취약성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는 특권에 대한 요

구와 자기애적 분노를 보이는 상태(지배성, 보복)와 특권에 대한 기대를 부인하는 상태(사회적 회피)를 오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웅대성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가 자신을 과장함으로써 취약성을 조절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약성 자기애를 가진 이는 이러한 자기고양을 사용할 수 없어 대인관계적 고통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더 쉽게 회피한다(Dickinson & Pincus, 2003). 또한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따른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를 활용하여, 과민성 자기애는 ‘비사회적이다’, ‘고립적이다’, ‘사람을 멀리한다’와 같은 형용사들과 관련이 높아, 전체적으로 냉담하고 비사회적인 특성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자신의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회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들이 선택하는 주된 대처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대처방식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이 주변의 타인에게 사회적인 지지나 긍정적인 강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울에는 심리적 충격을 가져오는 주요 생활사건이나, 이러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 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 등 부정적 요소들에 의해 촉발되는 우울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요소들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혼자 지내거나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어 있는 조건 하에 있으면,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이 서서히 낮아지고 우울증이 촉발될 수 있다(권석만, 2000). Ferster(1973)의 우울 모델에 따르면, 회피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행동 레파토리가 제한되며, 수동적인 행동 레파토리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이들이 쉽게 보이는 사회적 회피 행동은 다양한 강화를 얻을 수 있는 행동 패턴들을 제한하고, 개인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고립되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우울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주의 간격을 둔 두 시점에 걸쳐 회피 대처, 불안과 우울의 관련성을 조사한 Grant 등(2013)의 연구에서는 행동적 회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을 예측했다. Davila(1993) 또한 중단 연구를 통해 사회적 회피와 우울의 관계를 밝혔는데,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사회적 회피를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행동적) 회피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연인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서의 만성적 문제들을 다룰 때는 사회적 회피를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김은지, 이은샘과 현명호(2018)의 연구가 행동적 사회적 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행동적 사회적 회피와 우울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절민감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행동적 사회적 회피를 통해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에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McWilliams, 1994/2008), 이러한 사회적 회피 행동이란 자존감의 원천인 타인과의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이기에 그들의 과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우울한 기분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 관찰과 이론적인 배경 및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개인으로 하

여금 더 쉽게 사회적으로 회피하도록 만들고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적 회피 행동을 하게되는 그 과정에 존재하는 심리 내적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인을 설정하여 밝혀낸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기에 성향이 사회적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국내에서는 자기대상욕구와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다룬 임혜인(2015)과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다룬 김현아와 김정규(2016)의 논문뿐이었다. 더욱이 두 연구 모두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사회적 회피 하위척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설정한 매개 변인들이 사회적 회피 행동에 갖는 고유한 영향력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만약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이들이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할 때 어떠한 심리 내적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다면, 이에 개입함으로써 우울의 원인인 사회적 회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우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자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회피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타인에 대한 내적인 유대감의 손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타인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기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에너지를 남겨두지 못한다 (McWilliams, 1994/2008). 또한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해줌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진정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감정을 제대로 공감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권석만, 한수정, 2000). 이뿐만 아니라, 자기애적인 사람은 후회나 감사 같은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감정이나 행동을 회피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McWilliams & Lependorf, 1990). 자기애적인 사람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착각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자기 감각을 구축하려고 하므로, 죄책감이나 의존심을 시인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어떤 것이 노출된다고 두려워한다. 실제로 Wolf(1988)는 사회와 동료로부터 적절한 공감과 이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전형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애적 성격 특질을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자기애적 특성이란 외부의 확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성격이 조직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McWilliams, 1994/2008). 이러한 이들에게 타인은 과대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즉, 찬사와 인정을 제공해 주며 과대한 자기의 자양분이 되는 존재 혹은 비판과 실망으로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타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내적 감각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며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편하고 즐겁게 느끼는 것과 같은 인간

적이고 자연스러운 감각들과는 다르며, 상호배타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가진 이들은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친밀감을 느끼거나, 타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깊이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갖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친밀감, 소속감의 느낌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유대감이다. 사회적 유대감이란 사회적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되며, 소속에 대한 내적 감각을 반영한다 (Lee & Robbins, 1998). 사회적 유대감은 Kohut(1984)의 자기심리학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속감’의 개념을 Lee와 Robbins(1995)가 더욱 정교화한 개념이기도 하다.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유대감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는 현재까지 한 편(최용석, 2019)에 그쳐,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타인을 자존감의 수단으로 지각하는 특성 등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지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은 이들은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고 (Tesser, 1991), 낮은 자기존중감, 불안, 우울의 문제에 덜 취약하다 (Kohut, 1984). 또한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때 중요한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 결과 (Dunkley et al., 2000; Rice et al., 2006)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받는다 고 느

끼는 것 자체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상태를 완화하고 막아주는 완충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그들의 욕구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낮은 자기존중감, 불안, 우울에 취약하고(Lee, 1998), 질투심과 외로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더 쉽게 경험한다(Baumeister & Leary, 1995).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긍정 정서, 삶 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었고 부정 정서와 부정 관계를 보였으며(Lee, Dean, & Jung, 2008; Yoon, Lee, & Goh, 2008), 완벽주의와 무망감,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ice et al., 2006). 또한, 전명임과 이희경(2011), 정인철과 노안영(2015), 이지혜, 조민희, 이채연, 이수정과 이상민(2014)의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 간의 유의한 부정 상관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임상적 관찰과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유대감이 낮으며, 이러한 심리 내적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이 떨어지는 것은 더 큰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Lee, 2001).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이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수준도 높기 때문에,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Aronoff, Stollak, & Woike, 1994; Miller, 1992). 예를 들어,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고 쉽게 타인과 어울리고 동일시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Lee, 1998).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있고, 사람들 혹은 집단과

관계 맺을 수 있으면서도 자신을 외톨이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Lee, 2001). 또한 낮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이들은 적절한 대인관계 행동들을 해본 적이 없거나 보여주지 않고, 대신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은 역기능적인 대인관계적 행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친밀해지기 어렵고, 단정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다(Hazen & Shaver, 1987; Rook, 1984).

이처럼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며, 적절한 대인관계 행동은 부족하고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행동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유능감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심지어 실제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겪더라도 타인과의 연결감을 경험하기 어렵고, 적절한 대인관계 행동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만들어내고 지속하기 어려워 결국 대인관계에서의 유능감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 것이고, 대인관계에서의 좌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가 유의한 부정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Lee, 2001),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미약한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로부터 도망쳐

나오거나 그러한 기회를 피하기 쉽다고 밝혀졌다 (Lee, 1998). 이와 함께,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회피적인 대인관계적 행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Hazen & Shaver, 1987; Rook, 1984),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거절당하거나 배제당할 것이 두려워 사회적인 활동들을 피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Rook, 1984).

이러한 회피적 대처가 비난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낳는다고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Lee & Robbins, 1995),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되며, 특히 자기애적인 사람에게는 자존감의 원천인 타인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더욱 쉽게 우울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고, 결국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데, 이러한 회피행동이 나타나는 기저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타인을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는 심리 내적 과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내적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 회피 행동과 우울로 연결되는 순차적인 과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특성은 그 자체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회피 행동을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개인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이 손상되는 것은 우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일 것으로 보았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성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다룬 논문들을 보았을 때, 수치심(강석기, 고수현, 2011; 구현경, 김중남, 2014; 김애경, 하승수, 2020), 지각된 사회적지지(구현경, 김중남, 2014; 이진숙, 현명호, 201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진숙, 현명호, 2012), 완벽주의(구현경, 김중남, 2014), 자기제시 동기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곽유미, 2015), 경험회피(김지선, 이소영, 2018), 정서인식명확성(유현아, 송원영, 2018), 및 정서표현 양가성(유현아, 송원영, 2018; 정희선, 이민규, 2022), 자기비난과 자기자비(김민서, 이상희, 2019), 거부민감성(박선영, 이정윤, 2020), 우울반추(김용희, 2020), 자기대상화와 대인관계 불안(김경민, 이현정, 2022) 등의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식이나 행동을 다루고, 그러한 대처방식의 기저에 있는 내적 심리 과정을 함께 밝혀낸 연구는 소극적 대처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이진숙과 현명호(2012)의 연구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기저에 있는 심리 내적 기제와 행동적 기제를 함께 밝혀내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가 각각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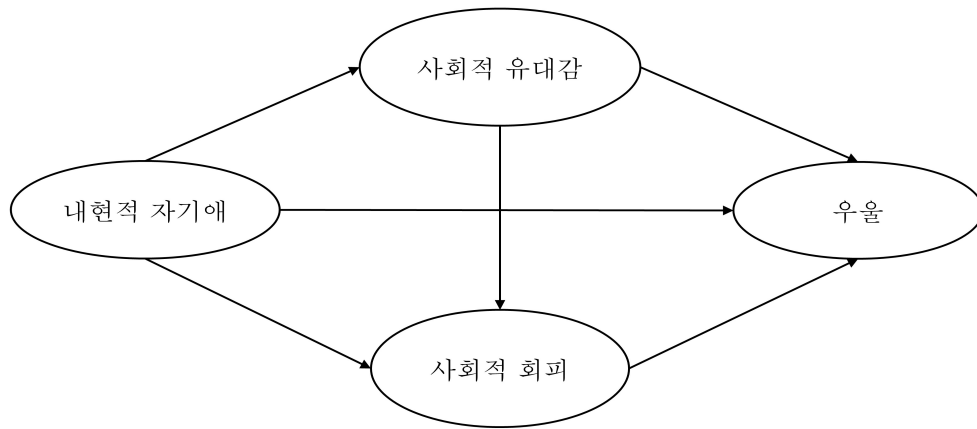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첫째,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회피와 우울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회피가 각각 매개하는가?

셋째,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두 달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1040395-201908-14).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개설된 전공 및 교양과목 강의에서 집단으로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이 진행되기 전 설문에 대한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 보상 등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한 학생만 설문을 진행

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연구자의 SNS,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소개, 보상, 비밀보장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에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모두 응답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설문 참여자는 모두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았다. 오프라인으로 362부, 온라인으로 77부 총 439부의 설문 답변을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8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 총 4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54명(37.5%), 여성 257명(62.5%) 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2.01세($SD=3.26$)였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본 척도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외현적 자기애와 공유하는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을 분류하여 5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했다. 공통요인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이며,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구성된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 1에서 .90, 연구 2에서 .91,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 본 척도는 Lee와 Robbins(1995)가 개발하고 Lee 등(2001)이 개정한 척도를 전명임과 이희경(2011)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 전반에 소속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명임과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명임과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 .89,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이지현과 김수영(2016)의 연구에서 소개된, 고유분산 분배전략에 해당하는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3개의 문항묶음을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Landis et al., 2000).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Behavioral Social

Avoidance Scale: BSAS). 본 척도는 Ottenbreit과 Dobson(2004)이 개발한 척도를 전선영과 김은정(2013)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행동 회피 척도(Cognitive-Behavior Avoidance Scale: CBAS)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척도 중 하나이다. 인지-행동 회피척도는 문제 혹은 상황을 다루는 대처 방식에 대해 묻는다. 인지-행동 회피 척도는 인지적 회피와 행동적 회피를 나누는 차원과 사회적 회피와 비사회적 회피를 나누는 차원,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Ottenbreit과 Dobson(2004)의 연구에서 .86, 본 연구에서 .85였다. 본 척도 또한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3개의 문항묶음을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CES-D는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역학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이다(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전점구, 최상진과 양병창이 2001년 연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한국판 CES-D를 기초로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극히 드물게: 1일 이하(0점)'에서 '거의 대부분: 5일~7일(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각 요인의 문항 구성이 Radloff(1977)의 미국판 CES-D의 문항 구성과 다르다. 또한 CES-D를 국내 연구들 사이에서도 요인구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요인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오고 있다(이미숙, 2002). 신재은, 이태현과 윤소진(2017)의 연구에서 Bifactor 모형을 적용하여 CES-D의 요인구조를 검증한 결과 CES-D를 우울이라는 강력한 일반요인을 가지는, 단일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우울 척도를 단일 차원으로 가정하고,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3개의 문항 묶음을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91,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IBM SPSS Amos 22.0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지표의 정규성과 연속성 및 모수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 측정 지표들이 타당하게 구성개념을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행하였다.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자료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과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1	2	3	4
1. 내현적 자기에				
2. 사회적 유대감	-.628***			
3. 사회적 회피	.536***	-.621***		
4. 우울	.703***	-.697***	.628***	
평균	2.67	4.29	2.23	0.80
표준편차	0.55	0.70	0.78	0.46
왜도	-0.06	-0.14	0.40	0.61
첨도	-0.37	-0.36	-0.52	-0.38

주. *** $p < .001$.

확인하고, 왜도 및 첨도를 살펴봄으로써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봄으로써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해 보면,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회피, 우울은 서로 정적상관을 보였고, 이들 세 가지 변인과 사회적 유대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 왜도의 절댓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10보다 작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할 때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다. 하지만 χ^2 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TLI와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08보다 작으면 모형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MacCallum et al., 2001). 본 연구에서도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긴 하나($\chi^2=215.97$, $df=69$, $p=.000$), TLI와 CFI의 수치가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수준이며(TLI=.954, CFI=.965), RMSEA의 수치 또한 보통의 적합도로 간주하는 수준이었다(RMSEA=.072). 따라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에서의 요인부

하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내현적 자기애가 .39~.90, 사회적 유대감이 .88~.90, 사회적 회피가 .73~.91, 우울이 .86~.90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의 요인부하량이 .5 이하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p<.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외현적 자기애와 공유하는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내현적 자기애의 양극적 자기경험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기에 포함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과민/취약성 하위요인의 측정오차 간 존재하는 공분산이 모형의 적합도를 낮추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공유하는 공통요인에 함께 속해있어, 관련성이 높아 측정오차 간 공분산이 커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과민/취약성은 자기애의 양극적 자기경험을 반영하는 두 하위요인이다. Kernberg(1975)는 자기애의 양극적 자기경험은 자기를 거대한(전적으로 좋은) 자기로 느끼거나 고갈된(전적으로 나쁜) 자기로 느끼는 상반된 자아 상태의 반영이며, 자기애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것만이 자신의 내적 경험을 조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McWilliams, 1994/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인정욕구/거대자기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215.97	69	<.001	.954	.965	.072

환상과 과민/취약성은 자기에 영향을 가진 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기에,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이 커 측정오차

간 공분산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이 모형 적합도를 낮추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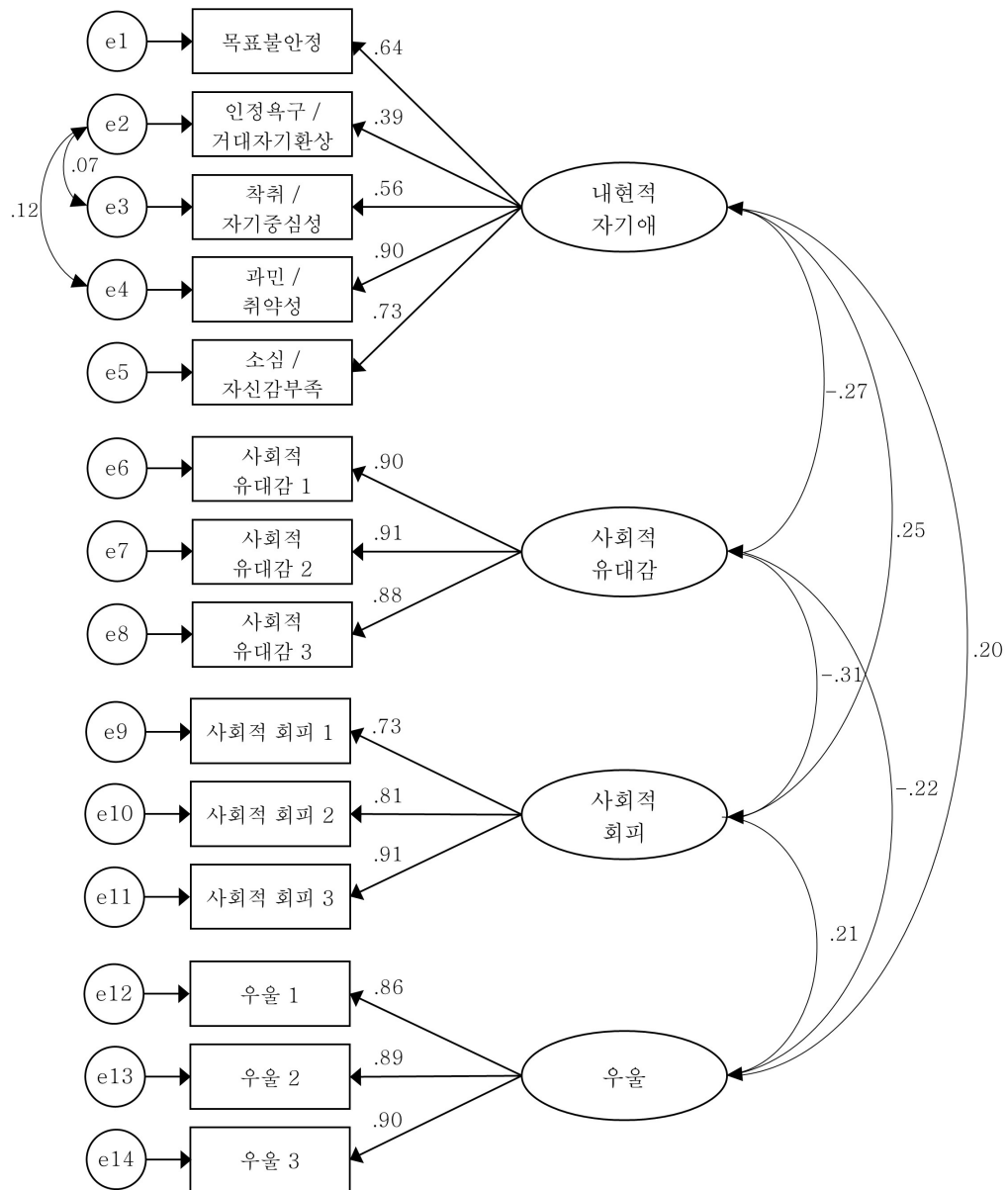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검증

지표를 사용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동일하여($\chi^2=215.97$, $df=69$, $p=.000$, $TLI=.954$, $CFI=.965$, $RMSEA=.072$),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는 표 3에, 최종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beta=-.77$, $p<.001$)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정적으로, 사회적 회피($\beta=.29$, $p<.001$), 우울($\beta=.52$, $p<.001$)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클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을 더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β	<i>S.E.</i>	<i>t</i>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 유대감	-0.92	-.77	.08	-12.34***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 회피	0.37	.29	.10	3.78***
내현적 자기애	→ 우울	0.43	.52	.06	7.33***
사회적 유대감	→ 사회적 회피	-0.51	-.47	.08	-6.11***
사회적 유대감	→ 우울	-0.14	-.20	.05	-3.11**
사회적 회피	→ 우울	0.13	.21	.03	3.94***

주.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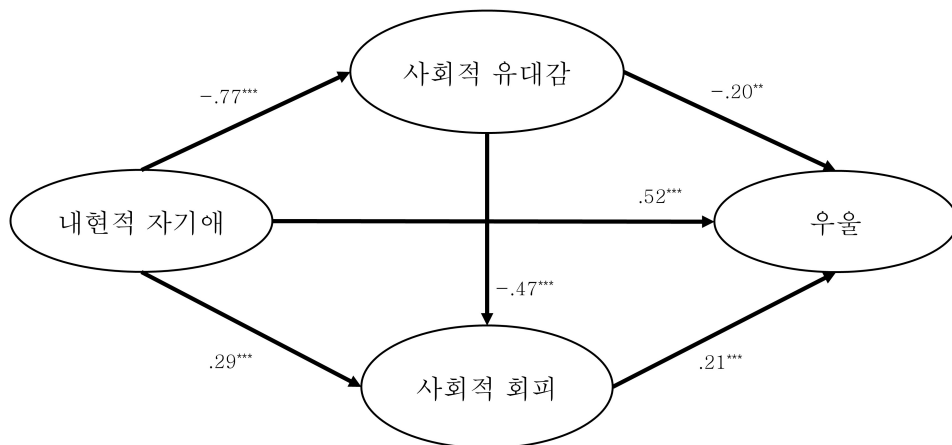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주. ** $p<.01$, *** $p<.001$.

많이 회피하고,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이 사회적 회피($\beta = -.47, p < .001$), 우울($\beta = -.20, p < .01$)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상황을 더 많이 회피하고,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회피가 우울($\beta = .21, p < .001$)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을 더 많이 회피할수록 더 우울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Shrout와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배병렬(2017)이 제안한 방식으로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특정간접효과들을 분석하였다. 이 방식은 구조모형의 개별 매개경로를 반영하는 팬텀변인을 만들고 각 매개경로의 간접효과를 단일 계수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후 5000번의 부트스트랩 반복추출을 통하여 생성된 부트스트랩 표본을 사용해 특정간접효과들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 가지 경로 모두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고,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를 각각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고 사회적 회피를 높이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회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회피, 우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대감은 나머지 모든 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로써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들 중 하나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유대감이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최용석,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타인을 자신에게 인정과 칭찬을 제공하여 자존감을

표 4.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i>p</i>	95% Bias-Corrected CI	
			Lower	Upper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 유대감 → 우울	0.127	.007	0.039	0.223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 회피 → 우울	0.050	<.001	0.021	0.095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 유대감 → 사회적 회피 → 우울	0.063	<.001	0.026	0.114

높여주는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며(권석만, 한수정, 2000),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착각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자기감각을 구축하려 하고, 이를 위해 타인에 대한 의존심이나 후회, 고마움과 같은 감정을 부인하고 표현하지 않으려 하는 등의 자기애적 특성을 가진 이들은(McWilliams, 1994/2008), 타인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소속되었다고 느끼는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은 사회적 회피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이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거절당하거나 배제당할 것이 두려워 사회적인 활동을 피하며(Rook, 1984),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피하기 쉽고(Lee, 1998),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 간 부적 상관이 있다는(Lee & Drafer, 2001)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내담자는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가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두 번째 연구 가설 또한 채택되었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는 과정을 통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

적 자기애가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는 특성(McWilliams, 1994/2008)은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개인이 가진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고, 이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지받는다 고 지각하기 어렵게 만들고 개인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문제와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본 최용석(2019)의 논문에서 더 나아가,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게 된 후 일어나는 정서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서 내현적 자기애 성격이 확인될 경우 어떤 요인들을 탐색하고 개입해야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이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을 경우,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연결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탐색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이러한 지각적 특성과 내적 감각에 개입하는 것이 내담자가 경험하는 우울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회피 행동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며(Dickinson & Pincous, 2003), 비사회적인 특성을 보인다(정남운, 2001)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행동적 회피 대처가 우울을 예측하며(Grant, 2013), 만성적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회피 행동이 높은 수준의 우울을 이끌고(Davila, 1993), 행동적 사회적 회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김은지

외, 2018)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사회적 회피, 우울이 한 경로 내에서 함께 다루어진 적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 또한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서 내현적 자기에 성격이 확인될 경우 어떤 탐색과 개입 필요할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이가 우울을 경험할 경우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고, 이러한 회피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내담자의 우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세 번째 연구 가설까지 채택되었다.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들과 상호 호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기가 어렵게 만들고(권석만, 한수정, 2000), 이는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톨이로 느끼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것이다(Lee, 2001). 이러한 심리 내적 감각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들은 거절당하거나 배제당할 것을 두려워해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며, 사회적인 활동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Hazen & Shaver, 1987; Lee, 1998; Lee & Draper, 2001; Rook, 1984). 이러한 사회적 회피 행동은 결국 정서적 자원이 되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강화를 얻을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

사회적 지지로부터 고립되며 우울로 이어진다(권석만, 2000; 김은지 외, 2018; Davila, 1993; Ferster, 1973; Grant et al., 2013).

본 연구는 자기에 성향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욕구와 자기비난이 매개함을 밝힌 임혜인(2015)의 연구 및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다룬 김현아와 김정규(2016)의 논문과 유사하게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적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과정을 밝혀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사회적 회피와 사회불안이 혼재된 변인을 사용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사회적 회피만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회피 행동을 고유하게 측정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이들의 행동적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회피 행동의 원인에 심리 내적 과정인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가 존재함을 밝혀냈다는 점이 앞선 연구들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사회적 회피를 종속변인으로 채택한 두 선행 연구와 달리, 내담자를 찾아오게 만드는 주호소인 정서적 결과인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또 다른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내적 과정인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 행동인 사회적 회피를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의 어떠한 심리 내적·행동적 과정이 존재하는지 밝혀낸 것으로, 상담에 찾아와 우울을 호소하는 이들을 돕고자

할 때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상담에 찾아왔을 때 사례개념화 및 상담 방향성 설정에 있어 중요하게 탐색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한다. 내담자가 내방하여 우울감을 호소할 경우, 내담자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회피 행동을 하고 있어 실제로도 고립되어 있는지, 혹은 맺고 있는 대인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립되어 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각 요소들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례개념화 및 상담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요소 중 하나는 우울한 내담자의 경우 자기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인데, 앞서 서술한 것처럼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과민한 모습 정도이며(강선희, 정남운, 2002), 우울한 유형의 자기애성 성격은 우울성 성격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McWilliams, 1994/2008). 그렇기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은 기저의 성격적 특성, 특히 자기애성 성격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개념화와 상담 방향성 설정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울성 성격과 자기애성 성격을 감별하고자 할 때, 우울성 성격은 분명한 부정적 자기감각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자기애성 성격은 자기감각이 없는 듯 보인다는 차이점과, 우울성 성격은 강력한 구조 환상을 역전으로 불러일으키는 반면, 자기애성 성격은 모호하고, 짜증스럽고, 감정이 얇은 종류의 역전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

겠다.

다음으로,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개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인지행동치료적으로 접근하는 상담자라면 인지삼제 및 역기능적인 신념과 인지도식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인지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고, 정신역동적으로 접근하는 상담자라면 내담자의 초자아를 공격하여 약화시키는 개입을 동원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회피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지는 것이 함께 확인될 경우, 회피 행동에 대한 행동수정 및 사회적 유대감을 떨어트리는 자동적 사고나 인지적 오류들을 시도하고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내담자의 자기애적 성향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담자가 의도하지 않은, 혹은 의식하지 못한 지점에서 내담자의 취약한 자존감에 위협을 주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Dickinson & Pincus, 2003), 갑작스러운 치료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McWilliams, 1994/2008).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우울한 내담자가 보이는 사회적 회피 행동 및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적 특성과 우울감이 관찰되는 내담자에게서 자기애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여 적절히 사례개념화 할 수 있다면, 내담자에게 존재하는 행동적·인지적 요소들을 수정하려고 시도하기보다,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결핍된 자기의 구조를 튼튼하게 세울 기회를 제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홍이화, 2011).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을 가진 내담자가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개입의 주요점이 사회적 유대감의 증진에 있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았을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회피 행동과 우울은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의 손상에 근원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유대감에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Kohut은 어린 시절 소속과 친밀감에 대한 발달적 욕구가 좌절되었던 개인은 자기에적 상처를 경험하고 성인기에 사회적 유대에 대한 내재화된 감각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Kohut, 1984). 이처럼 사회적 유대감의 손상은 발달 과정에서의 결핍된 욕구와 자기에적 상처와 깊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낮은 사회적 유대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원에 있는 결핍된 욕구가 채워지고 자기에적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장면에서 치료자가 공감적인 반응을 통해 자기대상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결핍되어 왔던 친밀감의 욕구를 보상받는 교정적 정서경험을 하게 되고, 내담자는 상담자가 제공하는 자기대상의 기능을 변형적으로 내재화하며 타인에 대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형태의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담자가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기대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회피 행동을 줄여 나가며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지만, 실제로 표집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확인해 보았을 때 20대 초반의 나이대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오프라인 표집의 대부분이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표본은 18세 이상 성인의 모집단을 최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를 가진 연구 대상자들을 표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한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응답이 실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반응의 편향을 통제하기 위한 연구 절차나 측정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유대감이 저하되는 것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가 공유하는 특성이나, 사회적 회피와 우울은 내현적 자기에에서만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이들에 한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 간의 어떤 차이점이 사회적 회피 행동 및 우울에서의 차이점을 가져오는지를 알 수는 없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이

밝혀진다면,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행동 양식 차이에 영향을 주는 내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2011). 대학생의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정서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연구논총*, 32(2), 1-27.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최근 5년(2017~2021)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none>.
- 곽유미 (2015). 대학생의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자기제시 동기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다매개효과. *인간이해*, 36(2), 1-19.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권석만 (2000). *우울증 :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23-1048.
- 김경민, 이현정 (2022). 여대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간의 상관관계: 자기대상화와 대인관계 불안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1), 69-82.
- 김민서, 이상희 (2019).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자기비난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4), 79-93.
- 김용희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우울반추를 통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457-480.
- 김은지, 이은샘, 현명호 (2018). 거절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87-207.
- 김애경, 하승수 (2020).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6), 1181-1193.
- 김지선, 이소영 (2018).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6(2), 365-383.
- 김현아, 김정규 (2016).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단법인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6(12), 319-333.
- 박광희 (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38(6), 779-788.
- 박선영, 이정윤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9(3), 109-125.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신재은, 이태현, 윤소진 (2017). Bifactor 모형을 적용한 CES-D 척도의 요인구조 검증. *스트레스*, 25(4), 272-278.
- 유현아, 송원영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8(3), 161-168.
- 이미숙 (2002). 한국판 CES-D 척도의 요인구조분석에 대한 재검토. *보건과 사회과학*, 12, 43-62.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목록: 원리의 이해와 적용*.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지혜, 조민희, 이채연, 이수정, 이상민 (2014)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21-41.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임혜인 (2015). 자기애적 취약성이 사회적 불안 및 회피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욕구와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명임, 이희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67-83.
- 전선영, 김은정 (2013). 대학생의 반추 하위유형들(물두와 반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3(2), 285-306.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인철, 노안영 (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격려, 자기낙담,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97-297.
- 정희선, 이민규 (2022). 20대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과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2), 367-391.
- 최용석 (2019).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와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이화 (2011).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ronoff, J., Stollak, G. E., Woike, B. A.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breadth of interpersonal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5-11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Davila, J. (1993). *Attachment,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nd stres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development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9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83.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Ferster, C. B. (1973). A functional analysis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28, 857-870.
- Grant, D. M., Wingate, L. R., Rasmussen, K. A., Davidson, C. L., Sligh, M. L., Kerswill, S. R., Mills, A. C., & Judah, M. R. (2013). An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voidance coping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8), 878-896.
- Haze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84). In Golderg A. (Ed.),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dis, R. S., Beal, D. J., & Tesluk, P. E. (2000). A comparison of approaches to forming composite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2), 186-207.
- Lee, R. M., Dean, B. L., & Jung, K. (2008). Social connectedness, extraver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5), 414-419.
-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 Lee, R. M., &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38-345.
- MacCallum, R., Widaman, K., Preacher, K., & Hong, Sehhe. (2001).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The role of model err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 611-637.
- McWilliams, N. (2008). 정신분석적 진단: 성격구조의 이해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정남운, 이기런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McWilliams, N., Lependorf, S. (1990). Narcissistic pathology of everyday life : The denial of remorse and gratitud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26, 430-451.
- Miller, I. J. (1992). Interpersonal vulnerability and narcissism: A conceptual continuum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narcissistic psychopathology. *Psychotherapy*, 29, 216-224.
- OECD (2021). 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An integrated, whole-of-society response.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ccafa0b-en>.
- Ottenbreit, N. D., & Dobson, K. S. (2004). Avoidance and depression: the construction of the Cognitive-Behavioral Avoidance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3), 293-31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e, K. G., Leever, B. A., Christopher, J., & Porter, J. D. (2006). Perfectionism, Stress, and Social (Dis)Connection: A Short-Term Study of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Honors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524-534.
- Rook, K. S. (1984). Promoting social bonding: Strategies for helping the lonely and socially isolated. *American Psychologist*, 39(12), 1389-140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Tesser, A. (1991). Social versus clinical approaches to self psychology: The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and Kohutian object relations theory. In R. C. Curtis (Ed.), *The relational self: Theoretical convergences in psychoanalysis and social psychology* (pp. 257-281). New York: Guilford Press.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Wolf, E. S. (1988). *Treating the self: Elements of clinical self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Yoon, E., Lee, R. M., & Goh, M. (2008). Accultura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46-255.

원고접수일: 2024년 2월 14일

논문심사일: 2024년 3월 25일

게재결정일: 2024년 8월 26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6, 1017 - 1041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Avoidance

Yeonsu Jang Nam-Woo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d that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avoidance c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To test this hypothesis, covert narcissism, social connectedness, social avoidance,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for 411 adults.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ocial connectedness, social avoidance, and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avoidance had simple an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Third,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avoidance showe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Social connectedness, Social avoidance